

義和團運動時期 保守排外派의 動向

李 銀 子*

<目 次>

序	2)列強의 派兵과 保守排外派의 세력 장악
1.義和團運動初期 保守排外派의 부상	3.庚子事變과 이후 保守排外派의 몰락
1)山東의 仇教運動에 대한 官側의 대응	1)庚子事變의 발발 과정
2)光緒帝廢位問題와 保守排外派의 역할	2)開戰 이후 상황과 保守排外派의 몰락
2.列強의 무력간섭과 保守排外派의 세력 장악	結
1)列強의 간섭과 淸政府의 대응	

序

義和團運動은 1860년대부터 본격화되는 중국의 仇教運動을 결집한 反帝 愛國運動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첫째, 保守排外勢力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는 점, 둘째, 기독교세력과 이해를 같이한 列強에게도 중요한 관심을 끌었다는 점, 셋째, 이 때문에 淸政府가 義和團 세력과 연합하여 열강과 開戰하게 되는 극단적 상황으로 발전되었다는 점 등을 생각해보면, 이 운동에 대한 자리매김이 그다지 쉬운 일은 아니다. 성격상 전통사회의 민중운동에 있어 저항의 대상은 기존 권력층 혹은 王朝가 된다. 그러나 의화단운동은 그것보다는 외부의 기독교 더 나아가 제국주의세력에 대한 반대가 주축을 이루고 있다. 역사상 어떤 왕조가 민중운동세력과 연합하여 제국주의세력과 싸움을 감행한 경우도 찾아보기 힘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이 현실화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本稿는 여기서 청정부 집권층의 동향에 주목하여 이 문제에 접근해 보고 싶다.

太平天國運動을 진압한 이후 청정부 내 권력구조의 변화가 있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진압에 지대한 공을 세운 덕택에 새로이 권력의 핵심으로 부

* 고려대학교 강사 (중국근현대사)

상한 曾國藩의 湘軍集團과 기존 滿人執權層은 청정부의 안정을 자신의 이익으로 추구한다는 점에서는 같은 입장이었지만, 그것을 위한 정책에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曾國藩 집단은 곧이어 시작되는 洋務運動의 주축으로 활약하는데 이들은 대외정책에 있어 다소의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열강과의 충돌을 피하려는 기조를 유지하였다. 반면 이것은 기존 滿人官僚層 특히 排外感情을 갖고 있는 이들에게 대단한 불만이 아닐 수 없었다. 더욱이 기독교 선교사의 포교와 선교사를 새로운 권위의 대상으로 여기는 教民 세력이 향촌 내에 확산되어 가는 상황은 이들에게 또 다른 권위의 도전으로 보여지기에 충분하였다. 초기 仇教運動에 이들이 선두에 선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다.

그러나 초기에 대개의 仇教運動이 열강의 간섭으로 강경 진압되면서 그 주모자인 보수배외세력도 점차 위축되어갔다. 이들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게 된 것은 戊戌政變 이후 청정부가 보수화되면서부터이다. 이들은 西太后와 光緒帝 간의 갈등을 이용하여 西太后에게 점차 접근하였고, 의화단운동이 확대되고 排外의 여론이 확산되자 의화단세력을 이용하여 청정부 내에서 세력을 장악하려 하였다.

의화단운동 시기 이러한 보수배외파의 동향은 청정부와 의화단과의 관계 곧, 청정부의 의화단 대책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관건이 된다고 생각한다. 사실 의화단운동 시기 청정부의 의화단 대책을 살펴보면 일관되지 못한 부분이 많이 보이고 있다.¹⁾

특히, 開戰 후에 반포된 上諭를 보면 청정부의 의화단 대책이 얼마나 혼란스러웠는가 더욱 분명해진다. 대개의 학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 청정부가 의화단세력을 이용하여 열강과 전쟁을 하려다가 여의치 않자 열강과 타협하고 의화단세력을 제거하려는 과정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서술하고 있다.²⁾ 그

1) 이 점은 청정부와 의화단과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어렵게 만드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예컨대, 山東巡撫 毓賢의 의화단 정책이라든가, 청정부가 열강과 開戰을 하게 된 이유, 開戰 이후 의화단과의 합작 유무 등의 문제는 지금도 연구자들 간에 의견이 일치하고 있지 못한 부분이다. 이 부분에 대한 研究史는 路遙, 「建國以來義和團運動研究概論」(路遙 編, 『義和團運動』, 成都: 巴蜀書社, 1986), 79-101쪽을 참고하라.

2) 開戰의 이유에 대해 어떤 사람은 제국주의세력을 이용하여 의화단세력을 소멸시키기 위한 것이

러나 이런 식의 설명은 다분히 결과론적인 해석이라고 보여진다. 물론 청정부의 정책을 최종 결정하는 사람은 서태후이다. 그러나 당시 집권층의 동향이 서태후의 정책 결정에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했음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청정부의 의화단 대책을 집권층의 동향과 연결시켜 파악하는 것도 하나의 유용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생각은 당시 영국·미국·일본 등의 외교문서를 보아도 확인될 수 있다.

당시 청정부의 上諭에서 보이는 모순은 청정부 내 의화단 세력을 招撫·利用하려는 派와 강경 진압하려는 派, 양자 간의 대립때문에 나타난 현상이 아닐까? 戊戌政變 이후 청정부 내에 보수배외의 경향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었다는 점, 의화단운동 초기 西太后가 光緒帝 폐위문제를 거론하려다 열강의 압력으로 무산된 점, 의화단운동 발상지인 산둥지역 巡撫의 排外的 태도 등이 청정부 내 滿人 보수배외파로 하여금 의화단을 招撫·利用하여 세력을 장악하려는 결심을 부추겼고, 결과적으로 이들의 움직임이 의화단운동을 열강과의 전쟁으로 확산시킨 계기의 하나가 되지 않았을까?

本稿는 이러한 관점에서 의화단운동 시기 청정부의 의화단 대책을 보수배외파의 동향을 중심으로 살펴보려 한다. 구체적으로 제1장에서는 보수배외파의 부상 과정을 光緒帝 폐위문제와 山東巡撫의 의화단 대책을 다루면서 살펴볼 것이다. 光緒帝 폐위계획은 비록 실패했지만 보수배외파는 이 과정에서 西太后의 환심을 살 수 있었고, 山東巡撫의 의화단 대책은 당시 일반 관료층의 보편화된 배외감정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여론이 청정부 내 보수배외파의 부상에 일정 정도 역할을 했을 것이다.

제2장에서는 열강의 派兵 결정과 이 과정에서 청정부가 열강과 開戰하게 되기까지의 과정을 보수배외파의 세력 장악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볼 것이다.

제3장에서는 開戰으로 일단 보수배외파가 세력을 장악했지만 전세가 청

었다고 말하고(胡繩, 『義和團의 興起和失敗』, 『近代史研究』 1979年 第1期), 어떤 사람은 제국주의의 압력 때문에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林華國, 『關於義和團運動高潮階段的幾個問題』, 『近代史研究』 1981年 第1期). 그러나 청정부의 방침이 일단 의화단세력을 이용하여 열강과 開戰하였지만 여의치 않자 열강과 和議하고 의화단을 진압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였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양측 모두 인정하고 있다.

정부에게 불리해지면서 보수배외파의 입지가 약화되고 그 과정이 모순된 上諭를 통해 드러나고 있음을 살펴볼 것이다. 이로써 의화단운동이 갖는 복잡한 성격이 청정부 내 보수배외세력의 부상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보여줄 것이다.

1. 義和團運動初期 保守排外派의 부상

1) 山東의 仇教運動에 대한 官側の 대응

淸日戰爭 이후 중국에 대한 열강의 利權 쟁탈이 가속화되자 그것과 비례하여 각지의 仇教運動도 활발히 일어나고 있었다. 특히 山東의 仇教運動은 大刀會³⁾가 그 중심을 이루고 있었다. 이에 대해 청정부는 주도자를 체포하고 나머지는 해산시킴으로써 巨患을 방지하고, 열강과의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급적이면 사건을 빨리 마무리하려는 예전의 방침⁴⁾을 변함없이 고수하였다.

1897년 10월⁵⁾에 발생한 鉅野教案의 사후처리과정에서도 이 방침은 계속 되었다. 鉅野教案은 山東 曹州府 鉅野縣에서 大刀會가 주도하여 일으킨 독일 선교사 살해사건을 지칭한다.⁶⁾ 당시 프랑스공사관 만이 각국 선교사에게 신분증명서를 교부할 권리를 갖고 있었던 것에 대하여, 독일공사관 측은 1888년에 이르러 청정부로부터 산둥에서의 독일국적 선교사 신분증명서를 자체적으로 발행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하였다.⁷⁾ 이후 독일은 산둥의 利權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1896-97년 膠州灣의 경제적·군사적 가치를 조사하여, 이곳이 해군근거지로서 가장 우수하고 이를 중심으로 산둥 각지에 독일의 산

3) 大刀會는 義和拳·神拳 등과 함께 義和團을 구성하는 중요한 拳會였다. 大刀會는 특히 '刀槍不入'의 金鐘罩術을 익히는 단체로 산둥 서남부에 유행하였다. 大刀會·神拳·義和拳 등에 대해서는 拙稿, 「義和團組織·源流問題에 대한 研究史的 檢討」(高麗大學校中國近現代史研究會 編, 『中國近現代史研究通信』, 第11號, 1994년 9월, 내부발행)를 참고하라.

4) 『光緒朝東華錄』 卷3 (北京:中華書局, 1984년 重印本), 光緒 17年 6月 戊戌 上諭, 14-15쪽.

5) 本稿에서 지칭되는 날짜는 모두 陰曆 기준이다. 필요할 경우 괄호 안에 양력 표시를 하였다.

6) 『山東近代史資料』 第三分冊 (山東省歷史學會 編, 濟南:山東人民出版社, 1961), 31-33쪽.

7) 里井彦七郎, 「義和團運動」, 『岩波講座 世界歷史』 卷22 (東京:岩波書店, 1969), 57-58쪽.

업을 확장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⁸⁾ 鉅野教案은 바로 독일에게 산동의 이권 쟁탈을 위해 더할 수 없는 좋은 기회를 제공해준 셈이었다.

10월 7일 鉅野教案이 발생하자 독일공사 헤이킹(海靖, E.Heyking)은 13일 總署에 照會를 보내 주모자를 엄히 징벌할 것을 요구하였다. 청정부는 이에 대해 山東巡撫 李秉衡에게 “신속히 官員을 파견하여 상황을 조사하고 주모자를 체포할 것”⁹⁾을 명했다. 그러나 이병형은 독일의 膠州灣 점령이 이루어진 다음 날 21日字 奏에서, 현재 4명의 주모자를 체포했음에도 불구하고 독일이 교주만을 점령한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 일이 계획되었음을 의미하므로, 만일 總署大臣과 독일 使臣 간에 회담이 결렬될 경우 그들과 싸워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¹⁰⁾ 그렇지만 청정부의 반응은 아주 소극적이어서 23일 李秉衡에게 보내 上諭에서 “법을 엄격히 하여 後患을 막는 것을 주로 하고 경거 망동하여 決戰하지 말 것”¹¹⁾을 경고하였다.

26일 독일공사 헤이킹은 북경에서 總署首席大臣 恭親王 奕訢 등과 회담하는 자리에서 山東巡撫 李秉衡의 파면, 가해자 엄벌 및 손해배상, 산동의 철도·광산 利權에 관한 우선권을 독일에게 부여할 것 등을 요구하고,¹²⁾ 더 나아가 12월 12일에는 膠州灣을 99년동안 租借하겠다는 압력을 가했다.¹³⁾ 이들의 요구는 1898년 2월 14일 「膠澳租借條約」이 체결되면서 모두 승인되었다.¹⁴⁾

이 사건을 처리한 李秉衡은 1894년 山東巡撫로 재직하기 이전부터 吏治에 능하고 청렴결백한 인물로 알려져 있었다.¹⁵⁾ 1895년 청일전쟁이 일어났을

8) 田原碩次郎, 『膠州灣』, 滿洲日日新聞社, 1914 (里井彦七郎, 앞의 논문, 394쪽에서 재인용).

9) 『清實錄山東史料選』, 下 (山東師範大學歷史系中國近代史研究室 選編, 濟南:齊魯書社, 1984), 光緒 23年 10月 16日 上諭, 1921쪽.

10) 『義和團檔案史料』, 上 (故宮博物院明清檔案部 編, 北京:中華書局, 1978年 重印本), 「山東巡撫李秉衡電報」, 光緒 23年 10月 21日, 9-10쪽. 이하 『檔案』 上으로 略記하겠음.

11) 『檔案』 上, 「軍機處寄山東巡撫李秉衡電旨」, 光緒 23年 10月 23日, 10쪽.

12) 藤岡喜久男 譯, 『義和團:中國とヨーロッパ』, 東京:桃源社, 1967, 56쪽 (G.N. Steiger, China and the Occident: the Origin and the Development of the Boxer Movement, Yale Univ. Press, 1927).

13) 「光緒二十三年山東教案史料」, (故宮博物院明清檔案部 編『清代檔案史料叢編』第3輯, 北京:中華書局, 1979), 179-181쪽.

14) 『光緒朝東華錄』, 卷4, 光緒 24年 2月 戊辰, 4055쪽.

때는 和議를 반대하는 내용의 奏를 올렸고, 그해 9월에는 철로 건설·郵政局 설립·광산 개발·지폐 발행 등의 금지를 奏하였다. 이런 점에서 그는 수구적 입장을 갖고 있었다고 볼 수 있지만, 항상 민중생활에 관심을 기울이고 청정부의 정책에 諫言을 서슴지 않은 유능한 관리였다.¹⁶⁾ 그의 태도는 教案에 대한 입장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1896년 5월 江蘇 礪山縣에서 발생한 大刀會事件을 처리한 뒤 보고한 그의 6月 24日字 奏를 인용해보자.

洋教(=기독교)가 중국에 전래된 이래 직업이 없는 불순분자가 教民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은 기독교를 호신부로 삼고 良民(=非기독교인)과 소송사건을 일으켜 향리를 여지럽히고 있지만, 죄를 범해도 教民이라는 이유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선교사들은 이들을 심복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民教爭訟이 있을 때마다 선교사는 중간에서 지방관을 협박하고, 지방관은 선교사의 협박을 두려워하여 教民側에 아부하는 것으로 소송을 결말짓곤 합니다. 이로 인하여 良民은 教民에게 한을 품고 교민은 더욱 득의양양해집니다. 그 한이 싸여 결국 良民은 私鬪로 그 분함을 설욕하는 것입니다....이후 民教案件이 있으면 지방관으로 하여금 공정히 판단하여 처리하게 하고 선교사가 이에 관여하는 것을 허락해서는 안될 것입니다¹⁷⁾

그는 이처럼 교민과 선교사의 良民 즉, 非기독교인에 대한 횡포 및 지방관의 불공정한 태도를 教案의 발생 원인으로 보았다. 비록 청정부의 방침에 따라 주모자 체포에 주력하여 사건을 빨리 마무리하는 것에 역점을 두었지만, 그것으로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된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다.

李秉衡은 1897년 9월 2일 山東巡撫에서 四川總督으로 발령을 받은 상태였다. 그러나 독일측의 압력으로 그는 鉅野教案의 책임을 지고 그것마저 물러나야 했다.¹⁸⁾ 李秉衡이 免職된 뒤 山東巡撫로 임명된 사람은 前陝西布政使 張汝梅였으나 그 역시 沂州에서의 教案에 대한 책임을 물어 1899년 2월 3일 파직되고, 山東按察使였던 毓賢이 신임 巡撫로 임명되었다. 그는 漢軍正黃旗

15) 『清史稿』(北京:中華書局, 1966年 重印本), 列傳 254, 12765쪽.

16) 『清代人物傳稿』下編 第1卷(清史編委會編, 瀋陽:遼寧人民出版社, 1984), 166쪽.

17) 『檔案』上, 『山東巡撫李秉衡摺』, 光緒 22年 6月 24日, 3-6쪽.

18) 『清史稿』, 列傳 254, 12766쪽.

人 출신으로 1889년에 산동 曹州知府가 되었고, 이후 李秉衡·張汝梅 휘하에서 按察使로 재직하면서 教案 처리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었다.¹⁹⁾

張汝梅가 파직되고 毓賢이 山東巡撫로 임명되었던 시점인 1899년 2월 4일 청정부는 “民教爭訟時 지방관은 모름지기 공정하게 판결해야 하며 선교사 역시 어느 한 쪽을 편들어서는 안된다”²⁰⁾는 공식적 입장을 처음으로 밝혔다. 또한 沂州事件을 빌미로 독일이 선교사 보호를 명분으로 沂州 일대에 군대를 주둔시키자 청정부는 21일 巡撫에게 “朝廷一視同仁 無論民教 皆歸保護”의 취지를 독일에게 알려 즉시 군대를 철수할 것을 요청하라고 명하였다.²¹⁾ 청정부가 이 시점에서 앞서 教案이 발생했을 경우 단순히 주모자를 체포하고 나머지를 해산시키는 단순한 사후책 만을 소극적으로 명한 것에서, 教案의 발생 원인을 막기 위한 구체적 방안과 독일군의 주둔에 대해 항의한 점 등 다소 적극적 공세를 취하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

毓賢의 입장은 平原事件의 사후처리과정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다. 산동 濟南府 소속의 平原縣도 良民과 教民의 不和가 심했던 지역 중 하나였다. 사건의 발단은 差役 陳得和가 良民 6명을 拳民이라는 이유로 체포한 것에서 비롯되었다. 署縣 蔣楷가 이 사건을 분명히 조사하지 않은 채 이들을 그냥 하옥하면서 良民의 반발을 사게 되었고, 이를 이용하여 拳師 朱紅燈이 부근의 拳民과 함께 教民과 충돌하였다. 濟南府 知府 盧昌詒는 陳得和를 구금하고 良民 6명을 석방하는 것으로 사태를 수습하려 했지만 拳民은 계속 저항하였고, 다시 파견된 營官 袁世敦이 이들을 무력으로 진압하면서 사건은 마무리되었다.²²⁾

毓賢은 우선 署縣이 良民과 教民의 不和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했고, 軍이 수습과정에서 무리한 진압으로 良民에게 피해를 입힌 것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여, 署縣 蔣楷를 해임하고 진압 당사자인 袁世敦을 파직할 것을 청정부에 요청하고 아울러 사건의 주모자인 朱紅燈을 체포하도록 조치하였다.²³⁾

19) 『淸史稿』, 列傳 252, 12756-57쪽.

20) 『光緒朝東華錄』卷4, 光緒 25年 2月 壬午 4日, 4327쪽.

21) 『檔案』上, 「軍機處寄山東巡撫張汝梅電旨」, 光緒 25年 2月 21日, 21쪽.

22) 『檔案』上, 「山東巡撫李秉衡摺」, 光緒 25年 10月 6日, 34-36쪽.

청정부는 육현의 이러한 처리방법에 대해 10월 26日字 上諭에서 教民과 충돌한 자들을 모두 良民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우려의 뜻을 표시하였다.²⁴⁾ 그러나 毓賢은 拳會가 自衛保家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전제한 뒤, 서양인의 압력에 순응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²⁵⁾ 청정부의 태도가 열강의 압력 때문이라는 그의 지적은 정확하였다. 특히 미국공사 콩거(康格, E.H.Conger)는 平原事件의 사후처리가 拳會의 진압에 있지 않고 오히려 진압 담당자를 탄핵함으로써 拳會의 행동을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비난하고 毓賢의 파직을 강경하게 요구하였다.²⁶⁾

결국 미국공사의 압력으로 청정부는 11월 4일 毓賢을 파직하고 북경으로 소환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그는 이 때 북경에 와서 端王 剛毅 등 西太后 측근을 만나 “拳會는 忠勇하고 그들의 拳術은 믿을 만 하다”고 말했다고 한다.²⁷⁾ 이들은 毓賢을 통해 義和團에 대해 어느 정도의 정보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다.

이 시기를 전후하여 翰林院侍講學士 朱祖謨, 御史 黃桂鑾 등은 教案과 의화단 대책에 관한 입장을 上奏를 통해 여론화하였다. 이들은 ①教案의 원인은 선교사·教民의 횡포와 지방관의 불공정한 처리때문이다. ②의화단 등의 諸會는 良民을 괴롭히거나 官에 저항하지 않으며 自衛保家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③亂의 평정은 吏治 즉, 지방관의 공정한 태도에 달려있다. ④부득이하여 亂이 일어났을 경우라도 일률적으로 剿滅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지적하였다.²⁸⁾ 후술하겠지만 이러한 분위기는 이후 西太后 측근의 端王 일파가 의화단 대책에 관한 입장을 정리하는데 상당한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毓賢의 후임으로 山東巡撫가 된 사람은 袁世凱이다. 그는 北洋軍 중 가장

23) 註2와 같음.

24) 『清實錄山東史料選』下, 光緒 25年 10月 26日 上諭, 1957-58쪽.

25) 『檔案』上, 『山東巡撫毓賢摺』, 光緒 25年 11月 4日, 38-40쪽.

26)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1900, China (Washington: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01), No. 289, 1989. 11. 15(12. 7), pp.77-78 (이하 FRUS 1900으로 略記하겠음).

27) 『清史稿』列傳 252. 12757쪽.

28) 『檔案』上, 42-45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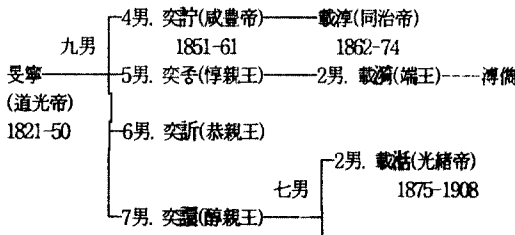
근대적 장비로 무장한 武衛中軍을 지휘하는 사령관으로 劉坤一·張之洞·李鴻章 등과 마찬가지로 일관되게 의화단의 진압을 주장한 인물이었다. 그가 巡撫로 임명되자 열강 각국은 그를 拳會의 진압과 산동의 질서회복을 위해 가장 적합한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환영의 뜻을 표시하였다.²⁹⁾ 반면 앞서 언급한 朱祖謀·黃桂鑾 등은 袁世凱의 진압정책이 오히려 良民과 敎民과의 불화를 확대시킬 것이라고 경고하였다.³⁰⁾ 청정부도 이를 우려하여 11월 24일 袁世凱에게 보낸 上諭에서 “袁世凱는 각 屬官에 嚴飭하여 良民과 敎民과의 소송사건이 있을 경우 공정히 처리하게 하고 병력에 의거하여 민심을 어지럽히는 일이 없도록 할 것”³¹⁾을 분명히 하였다.

이상에서 서술하였듯이 李秉衡·毓賢 등의 山東巡撫는 敎案이 발생하면 일단 주모자를 체포하고 나머지는 해산시키는 방법을 채용하면서도, 근본적 원인을 해결하지 않으면 敎案 자체를 막을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이들이 열강의 압력으로 잇달아 파직되는 현실은 일반 관료들에게 배외감과 위기감을 갖게 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西太后的 측근에 강한 배외성향을 지닌 端王 일파가 부상하는데 일정한 작용을 했을 것이라고 추측된다. 이하 이 부분에 대해 서술해보자.

2) 光緒帝廢位問題와 保守排外派의 역할

1861년 咸豐帝가 熱河의 行宮에서 病死한 이후 恭親王 奕訢³²⁾과 결탁하

- 29) 『英國藍皮書有關義和團運動資料選譯』(北京:中華書局, 1980), 「中國第3號, 1900」, 第9件, 1899. 12. 5(1900. 1. 5), 3-4쪽 (이하 『藍皮書』로 略記하겠음). FRUS 1900, No.228, 1900. 1. 2(2. 1), p. 97.
- 30) 註29와 같음.
- 31) 『檔案』上, 「軍機處寄署理山東巡撫袁世凱上諭」, 光緒 25年 11月 24日, 44쪽. 이 논조는 11월 27일의 上諭에서 재차 강조되고 있다(『檔案』上, 46쪽).
- 32) 본고에서 언급되고 있는 皇帝 및 親王을 개괄적으로 계보로 나타내보면 다음과 같다.



여 권력을 장악한 同治帝의 生母 西太后는 同治帝의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수렴청정을 시작하여 그후 청정부의 최고통치자로 군림하고 있었다. 西太后와 恭親王 일파는 軍機大臣 文祥·董恂 및 漢人勢力 曾國藩·左宗棠·李鴻章 등을 중용하여 洋務運動을 주관하였다. 그러나 恭親王의 세력이 점차 비대화해 지는 것에 위협을 느낀 西太后는 1865년 이후 奕訢을 끌어들이어 그를 견제하기 시작하였다.³³⁾

1875년 同治帝가 죽자 西太后는 그와 동배인 載灃을 光緒帝로 즉위시켰다. 그는 奕訢환의 아들로 재위 당시 5세이었다. 西太后는 역시 그가 어리다는 이유로 재차 수렴청정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1890년 光緒帝의 親政이 시작되면서부터 西太后와 光緒帝 간에 알력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비록 親政이 실시되고 있기는 했지만 光緒帝의 모든 동태는 안으로 宦官 李連英, 밖으로는 軍機大臣 孫毓汶 등에 의해 西太后에게 보고되었다고 한다.³⁴⁾ 光緒帝는 이에 대응하여 師父인 翁同龢를 비롯하여 禮部侍郎 志銳 및 侍講學士 文廷式 등을 중용하였는데, 이들 帝黨 세력은 보이지 않게 西太后의 측근세력 즉 后黨과 대립하였다. 사료에서도 이러한 예는 적지 않게 보이고 있다.

예컨대, 1894년 西太后의 六旬 축하일을 준비하기 위해 문무백관을 소집한 자리에서 光緒帝는 녹장을 부렸다는 이유로 李連英을 廷杖하였다. 西太后는 이 사실을 보고받고 光緒帝를 무척 원망하였다고 한다.³⁵⁾ 또한 황제의 측근인 兵部侍郎 長麟은 황제를 알현할 때 西太后에 관한 일이 언급되지만 하면, “(西)太后는 穆宗(同治帝)의 生母이나 실은 文宗(咸豐帝)의 측실입니다. 황제께서 文宗의 大統을 계승하였는데, (예로부터) 모든 후계자는 妾母로 母의 禮를 행하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때문에 慈安太后(東太后)가 皇上的 嫡母인 것입니다. 西太后의 경우 穆宗朝에서는 太后가 될 수 있었을지 모르나 皇

³³⁾ 5男. 載灃——溥儀(宣統帝)

1909-11

33) 丁名楠, 「十九世紀六十年至九十年代清朝統治集團最高層內部鬭爭概況」, 『近代史研究』 1982年 1期 (北京: 社會科學出版社), 155-157쪽.

34) 梁啟超, 『戊戌政變記』, 『戊戌變法文獻彙編』 卷1 (楊家駱 主編, 臺北: 鼎文書局, 1973), 256쪽 (이하 『戊戌變法』 1로 略記하겠음).

35) 『戊戌政變記』, 『戊戌變法』 1, 256쪽.

상의 경우에 있어서는 先帝의 遺妾일 뿐 母子의 관계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皇上께서는 太后로부터 大權을 차지해야 합니다”라고 하여 후에 西太后에게 파직되었다.³⁶⁾ 양측은 淸日戰爭에 대한 입장도 차이를 보였다. 帝黨 세력 특히 翁同龢는 일본과의 전쟁을 강력히 주장했던 것에 반하여, 后黨의 수뇌인 孫毓汶과 그와 절친했던 直隸總督 李鴻章은 타협과 양보를 주장하였다.³⁷⁾

1898년은 양자의 대립이 전환점을 맞이한 시기였다. 恭親王의 죽음 때문이었다. 그는 비록 西太后의 견제로 세력이 많이 위축되기는 했으나 여전히 滿人執權層과 漢人勢力 간의 중계자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죽음으로 양자 간의 완충지대는 사라지게 되었다.³⁸⁾

4월 10일 그가 서거한 뒤 얼마안가 먼저 帝黨側이 문제를 야기하였다. 光緒帝가 康有爲 등 變法派와 접촉하여 23일 ‘明定國是’의 詔書를 반포함으로써 戊戌變法을 실시한 것이다. 그렇지만 西太后 측의 반격도 만만치는 않았다. 불과 4일 만에 황제는 西太后의 압력으로 翁同龢를 ‘開缺回籍’(免職歸鄉)시키는 한편, 二品 이상의 大官은 모두 西太后 앞에서 謝恩의 뜻을 표할 것을 명해야 했다.³⁹⁾ 아울러 이날 西太后의 유력한 측근인 榮祿은 署直隸總督으로 임명되어 北洋軍을 통솔하게 되었다. 결국 后黨 세력은 變法에 불만을 가진 관료층의 여론을 등에 업고 8월 6일 政變을 일으켜 光緒帝의 親政 체제를 무너뜨리는데 성공하였다.

政變 이후 西太后는 먼저 조카인 榮祿을 중심으로 군사력의 재편을 꾀하였다. 榮祿은 戊戌政變 당시 直隸總督으로 袁世凱의 新建陸軍, 董福祥의 甘軍, 聶士成的 武毅軍을 북경 주위에 배치시켜 政變을 성공으로 이끄는 데 지대한 공을 세웠다. 西太后는 이런 능력을 인정하여 8월 13일 그를 軍機大臣으로 임명하고,⁴⁰⁾ 26일에는 그에게 軍事全權을 임명하는 上諭를 내렸다.⁴¹⁾

36) 『戊戌政變記』, 『戊戌變法』 1, 257-258쪽.

37) 丁名楠, 앞의 논문, 172쪽.

38) 『戊戌政變記』, 『戊戌變法』 1, 260쪽.

39) 『光緒朝東華錄』 卷4, 光緒 24年 4月 27日, 4097쪽.

40) 『光緒朝東華錄』 卷4, 光緒 24年 8月 13日, 4205쪽.

41) 『光緒朝東華錄』 卷4, 光緒 24年 8月 22日, 4222쪽.

아울러 西太后는 榮祿의 요청에 따라 종래 北洋四軍에 1軍을 더 첨가하여 北洋五軍이 수도 방위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直隸提督 聶士成 휘하의 武毅軍을 廬臺에 주둔시켜 前軍으로, 甘肅提督 董福祥의 甘軍을 薊州에 주둔시켜 後軍으로, 四川提督 宋慶의 毅軍을 山海關에 주둔시켜 左軍으로, 侍郎 袁世凱의 新建陸軍을 小站에 주둔시켜 右軍으로 삼았으며 새로이 新軍 1만명을 모집하여 南苑에 주둔시켜 中軍으로 삼고 榮祿의 직속으로 둬으로써 北洋軍의 再編을 완성하였다.⁴²⁾

榮祿 외에 剛毅도 西太后 측근의 중요한 인물이었다. 그는 滿洲黃鑲旗人으로 1892-1894년까지 廣東巡撫로 재직하면서 능력을 인정받아 1894년부터 軍機大臣으로 임명되었고 各部 尙書 등의 요직을 두루 거쳤다. 그는 매번 仇洋을 언급하고 洋務를 논하는 자가 있으면 모두 漢奸으로 배척하는 등 강한 배외적 성향을 갖고 있었다고 한다.⁴³⁾

이제 后黨에게 남은 문제는 光緒帝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였다. 이미 政變을 일으키기 전에 西太后와 榮祿은 光緒帝를 天津으로 불러들여 무력으로 폐위시킬 계획을 세웠고,⁴⁴⁾ 政變 이후에는 臥病說을 퍼뜨려 폐위 가능성에 대해 내외의 반응을 살펴보려고도 하였다.⁴⁵⁾ 光緒帝의 폐위 계획에 대해 열강과 漢人督撫層의 반응이 심상치 않자 西太后의 后黨은 반발을 최소화하면서 폐위를 사실상 실행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계획하였다. 이것이 소위 ‘己亥建儲’였다. 다음의 기록을 보자.

己亥(1899년) 皇上의 春秋는 29세였다. 이때 承恩公 崇綺가 오랫동안 私第에서 은둔하고 있었는데 大學士 徐桐이 당시의 정세를 살피는데 매우 절실하였다. 尙書 啓秀도 軍機大臣으로 徐桐과

42) 『光緒朝東華錄』 卷4, 光緒 24年 10月 24日, 4265-66쪽.

43) 羅惇宥「拳變餘聞」(中國歷史研究社 編, 『庚子國變記』, 上海:上海書店, 1982年 第4版), 35쪽.

44) 『戊戌政變記』, 『戊戌變法』 1, 261쪽.

45) 황제의 臥病說에 대해서는 소문 만이 무성했는데 光緒 24年(1898) 8月 10日 황제의 危病으로 各省의 名醫를 소집하라는 내용의 上諭가 공포되면서 현실화되었다(『光緒朝東華錄』 卷4, 4202쪽). 이에 대해 각국공사는 프랑스의사가 황제의 병을 진찰할 수 있게 해 줄 것을 總署에 요청하였고(李希聖, 『庚子國變記』, 『義和團』 1, 11쪽), 유력한 漢人勢力인 兩江總督 劉坤一是 ‘君臣之義已定 中外之口宜防’이란 전보를 북경에 보냄으로써 황제 폐위 가능성에 반대의 뜻을 표시하였다(李劍農, 『中國近百年政治史』 上, 臺灣:商務印書館, 1943, 200쪽).

마음이 합치하였다. 大學士 榮祿은 비록 次輔로 지위는 端王의 아래이나 太后의 신임을 받고 있어 실지의 대권은 그에게 속해있었다. 이들三公은 密謀하여 崇綺와 徐桐이 일단 草案을 잡고 榮祿의 서명을 얻어 上奏하기로 약속하였다. 11월 28일 啓秀가 먼저 榮祿의 집에 가서 두사람의 뜻을 전하였으나 榮祿은 크게 놀라 이를 만류하였다. 다음날 榮祿은 太后에게 獨對를 청하여 “장차 폐위 문제를 계획했다고 들었는데 사실입니까?”라고 물었다. 太后는 “없다. (있다고 한들) 실행 가능하겠는가?”라고 대답하였다. 榮祿이 다시 “太后께서 하시려 하면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단지 皇上의 죄가 분명하지 않아 외국공사들이 이 일에 간섭할 수 있으니 신중히 해야 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太后는 “일이 드러나면 어찌하느냐?”라고 물었다. 榮祿은 “꺼릴 것 없습니다. 皇上의 春秋가 왕성함에도 皇子가 없으니 종실의 가까운 친척의子を 택하여 大阿哥로 皇上의 후계자로 삼아 궁중에서 양육시켜 서서히 大統을 탈취한다면 명분이 있을 것입니다”라고 대답하였다. 太后가 오랫동안 생각한 후 “너의 말이 옳다”라고 말했다.⁴⁶⁾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西太后와 榮祿은 폐위 문제에 있어 열강의 압력을 깊이 의식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전처럼 직접 폐위시키는 것이 아니라, 皇嗣를 세움으로써 황권을 유명무실하게 하는 방법을 채택한 것이었다. 또한 劉坤一의 반대를 우려하여 미리 그에게 京師에 와서 황제를 알현할 것을 명하고 대신 鹿傳霖을 署兩江總督으로 임명하였다.⁴⁷⁾ 李鴻章은 청일전쟁의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면직된 뒤 이 시기에 署兩廣總督으로 임명되긴 했지만 아직 이 일에 직접 반대할 처지는 아니었다. 張之洞 역시 「勸學篇」을 서술하여 光緒帝가 추진한 戊戌變法에 반대의 뜻을 표시한 이래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이 계획은 12월 24일 어전회의를 거쳐 端王 載漪의子 溥儀를 大阿哥 곧, 皇嗣로 하는 上諭를 반포함으로써 현실화되었다.⁴⁸⁾ 그러나 당시 왕실의 家法上 皇嗣를 세우지 않는 것이 관례였던 것으로 미루어볼 때, 이것이 황제 폐위를 위한 준비단계였음은 누구나 추측할 수 있었다.⁴⁹⁾ 上諭가 반포된 이후

46) 「崇綺傳信錄跋書」, 『戊戌變法』 1, 477-478쪽.

47) 李劍農, 앞의 책, 201쪽.

48) 「有關義和團上諭」, 『義和團』 4, 10-11쪽.

49) 「立大阿哥之原因」, 『清朝野史大觀』 卷1 (上海:上海書店, 1986年 重印本), 106쪽.

상해에서는 電報局總辦兼知府인 經元善을 필두로 章炳麟·唐才常·蔡元培를 포함한 총 1,231명의 各省 ‘紳商士民’이 연명으로 북경에 ‘皇帝保護’의 전보를 보냈으며, 해외의 화교 수십만명도 계속해서 반대 입장의 전보를 보냈다.⁵⁰⁾ 西太后는 열강의 의향을 타진해보기 위해 榮祿에게 보낸 密旨를 통해 李鴻章에게 각국 공사의 의견을 알아보도록 했으나 이들의 입장도 마찬가지로였다.⁵¹⁾

내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西太后 측은 일단 ‘己亥建儲’를 통해 光緒帝 문제를 마무리하였다. 여기에서 새로 부상하는 인물은 端王이다. 그는 惇親王의 둘째 아들로, ‘己亥建儲’를 통해 자신의 아들을 皇子로 삼는데 성공함으로써 西太后의 유력한 측근으로 자리하게 되었다. 崇綺는 穆(同治帝)皇后의 父로 同治帝 사후 세력을 상실하고 은둔하고 있었던 인물이었고, 徐桐은 大學士로 역시 新學을 싫어한 보수주의자였으며, 啓秀는 그의 측근이었다.⁵²⁾ 앞서 인용된 「崇陵傳信錄跋書」에서는 ‘己亥建儲’時 剛毅의 역할에 대한 언급이 없으나, 「拳變餘聞」에서는 그가 이 사건을 주도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므로,⁵³⁾ ‘己亥建儲’는 榮祿과 剛毅가 중심이 된 西太后의 측근세력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새로이 등장하는 端王은 이후 의화단 대궐을 둘러싸고 보수배외파의 중심으로 활약하게 된다.

2. 列強의 무력간섭과 保守排外派의 세력 장악

1) 列強의 간섭과 淸政府의 반응

‘己亥建儲’를 통해 부상한 端王 일파의 움직임은 열강에게도 중요한 사

50) 坂野正高, 『近代中國政治外交史』(東京:東京大學出版會, 1973), 463쪽.

51) 李鴻章이 兩廣總督으로 임명되자 각국 공사는 축하를 위해 그를 방문하였다. 이 자리에서 李鴻章은 私見으로 청정부가 최근 皇嗣 등극을 예정하고 있는데 외교단이 참가하여 이를 축하해줄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외교단은 황제의 재위 20여년 동안 각국이 모두 그를 大清國元首로 인정하고 있는데 후계자의 등극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고 의심함으로써 인정할 수 없다는 뜻을 은근히 암시하였다 (田保橋潔, 『義和拳匪亂と日露』, 『東西交渉史論』 下, 東京:富山房, 1939, 1056쪽).

52) 「拳變餘聞」, 『庚子國變記』, 36-40쪽.

53) 「拳變餘聞」, 『庚子國變記』, 35쪽.

안이었다.⁵⁴⁾ 더욱이 平原事件에 대한 毓賢의 사후처리에 불만을 가진 열강은 이후 산둥 肥城縣에서 발생한 영국 선교사 살해사건 곧, 肥城事件을 계기로 개개의 사건에도 이해 당사국의 유무와 상관없이 모두 협력하여 공동전선을 펴는 정책으로 전환하였다.⁵⁵⁾

1899년 11월 28일 肥城事件이 일어나자 12월 4일 청정부는 上諭를 통해 袁世凱에게 兇盜의 체포와 선교사의 보호를 명하였다.⁵⁶⁾ 피해 선교사의 해당국 공사 맥도날드(寶納樂, C.M.Macdonald)는 사후처리를 위해 上海英國副領事 캠프벨(甘伯樂, C.W.Campbell)을 현지에 파견하여 해당(泰安府) 知府와 知縣의 처벌 등을 요구하였다.⁵⁷⁾ 그러나 예전과는 달리 巡撫 袁世凱의 처벌 문제는 거론하지 않았다. 이것은 맥도날드가 원래 袁世凱에게 호의적 입장을 갖고 있었기 때문인데, 실제로 肥城事件 이후에도 맥도날드는 그가 계속해서 山東의 질서를 회복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었다.⁵⁸⁾

肥城事件이 수습되어 가는 듯 했으나 12월 11일의 上諭는 열강과 청정부 간에 새로운 문제를 낳았다.

근래 各省에서 教案이 여러번 발생하자 言者들은 그때마다 會匪를 엄히 징벌해야 한다고들 한다. 그러나 會에는 구별이 있다. 不逞之徒(불순분자)들은 結黨하여 軍중을 선동하고 소란을 피우므로 용서해주기 어렵다. 그렇지만 安分良民들이 自衛를 위해 技藝를 익히거나 村衆과 연합하여 閭里를 보호하려는 것은 서로 지키고 돕는 뜻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런데 지방관이 이를 분별하지 않고 謠言을 잘못 듣고 會匪라고 지목하여 체포·살해하니...各省의 督撫는 賢吏를 신중히 택하여 지방을 다스려 民과 휴식하도록 하며 民教爭訟時에는 公正함을 잃지 않도록 하라...지방관에게 엄히 칙하여 안건을 처리할 때 단지 匪인지의 여부 혹은 亂을 일으켰는지의 여부 만을 문책하고, 會에 속했는지 혹은 教(民)인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논하지 말라⁵⁹⁾

54) FRUS 1900, No.315, 1899. 12. 29(1900. 1. 29), p.92.

55) 村松祐次, 『義和團의 研究』(東京:巖南堂書店, 1976), 111쪽.

56) 『檔案』上, 「軍機處寄署山東巡撫袁世凱電旨」, 光緒 25年 12月 4日, 47쪽.

57) 『檔案』上, 「山東巡撫袁世凱摺」, 光緒 26年 3月 16日, 75-78쪽.

58) 『藍皮書』, 「中國第3號, 1900」, 第99件, 1899. 12. 16(1900. 1. 16), 9쪽.

59) 『檔案』上, 「上諭」, 光緒 25年 12月 11日, 56쪽.

이 上諭에서 청정부는 앞서 沂州事件이 일어났을 때의 방침 즉, “朝廷一視同仁 無論民教 皆歸保護”의 원칙에서 더 나아가, 拳民을 不逞之徒와 安分良民으로 구분하는 유연성을 보이고 있다. 이 변화는 전술하였듯이 1900년을 전후해 부상한 端王 일파의 움직임, 일부 보수관료의 의화단에 대한 유화적 태도 등과 상관있을 것이다.

열강은 이 上諭에 대해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영국공사 맥도날드는 “이 상유는 청정부가 義和拳 등의 結社를 용서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⁶⁰⁾고 언급하였다. 미국공사 콩거도 역시 이 上諭로 인해 산동 북부와 직예 남부에 拳會의 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고 總署에 항의하였다.⁶¹⁾ 영국·미국·프랑스·독일 등 4국공사는 12월 11日 上諭의 내용을 가지고 12월 15일 영국 공사관에서 처음으로 공동회담을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 4국공사는 12월 11日의 上諭 내용에 대해 해명할 것, 義和拳과 大刀會의 진압을 명하는 上諭를 반포할 것 등을 청정부에게 요구하기로 하고, 共同照會(제1차)를 17일에 總署에 보냈다.⁶²⁾

청정부의 반응이 없자 4국공사는 재차 1900년 1월 22일 회담을 촉구하는 照會를 보냈다. 그렇지만 26일 각국에 전달된 總署의 照會는 “諸王과 官僚들의 말에 따르면 우리가 보낸 「請飭嚴禁拳會一摺」에 대한 회담으로, 조정은 正月 20日 直隸總督과 山東巡撫에게 拳會嚴禁을 명하는 上諭를 내렸다고 한다”⁶³⁾라는 짤막한 답변이었다. 4국공사는 다시 正月 20日의 上諭가 진압을 요구한 結社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단지 해당성 督撫에게 소란을 방지하라고 간단히 명했다는 이유로 불만의 뜻을 표시하였다.⁶⁴⁾

2월 2일 이탈리아 공사를 포함하여 5국공사는 總署와의 회담을 요청하기로 결정하고 제2차 共同照會를 준비하였다. 여기서는 앞서의 요구 즉, 拳會의 진압을 명하는 上諭를 반포하되 義和拳과 大刀會의 명칭을 언급할 것과 함

60) 『藍皮書』, 「中國第3號, 1900.」, 第18件, 1899. 12. 17(1900. 1. 17), 7쪽.

61) FRUS 1900, No. 316, 1899. 12. 29(1900. 1. 29), pp.93-94.

62) 『藍皮書』, 「中國第3號, 1900.」, 第27件 附件, 1899. 12. 27(1900. 1. 27), 12-13쪽.

63) FRUS 1900, No. 338(Inclosure 3), p.105.

64) 『藍皮書』, 「中國第3號, 1900.」, 第32件, 1900. 2. 5(3. 5), 13쪽.

게, 이 上諭를 반드시 京報에 게재할 것을 요구하였다.⁶⁵⁾ 總署는 이에 대해 공동회담 전날인 2월 1日字로 된 照會를 각국 공사에게 발송하였다. 이 照會에서는 拳會禁止를 내용으로 하는 直隸總督 裕祿의 布告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 布告 중에 正月 20日字 上諭의 내용이 언급되어 있었다. 각국은 이것에 비교적 만족스러운 태도를 보였으나 上諭에서 大刀會의 명칭이 빠져있고, 이 포고가 京報에 게재되지 않았음을 다시 문제삼았다.⁶⁶⁾

2월 2일 개최된 總署와 5국공사와의 회담에서도 5국공사는 계속해서 上諭의 京報 게재와 義和拳과 大刀會의 언급 件을 주장하였다. 總署首席大臣 慶親王과 總署大臣들은 ①大刀會는 義和拳과 같은 성질의 結社이므로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고 ②京報에 게재하는 것보다 직접 上諭를 해당 관리에게 전달하여 告示를 통해 民에게 알리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고 신속한 방법이라고 설명하고, 중국 법률상 이미 공포된 上諭를 다시 京報에 게재한 예가 없었다는 이유로 이들의 제의를 거절하였다.⁶⁷⁾

5국공사는 다시 9일에 회담을 열고 10일 제3차 照會를 총서에 보내, 앞서의 요구가 수락되지 않으면 自國民 보호를 위한 기타 조치를 취할 것임을 명백히 밝혔다.⁶⁸⁾ 여기서 자국민 보호를 위한 기타 조치란 병력에 의한 강압 조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 내용은 이미 4국공사가 1899年 12月 11日字 上諭 문제로 처음 회담을 개최했을 때 논의되었던 것이다.⁶⁹⁾ 9일 회담에서 이들은 공개적으로 중국의 해안에서 해군 시위를 하는 방법을 제시하였지만, 각국 정부는 이를 최후의 수단이라고 여겨 주저하였다.⁷⁰⁾

그러나 문제는 다른 곳에서 발생하였다. 청정부는 前山東巡撫 毓賢을 이 照會를 무시하겠다는 듯 2월 14일 山西巡撫로 임명하는 파격적 조치를 취했다. 이 조치가 端王 일파와 관련되어있으려는 점은 쉽게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 각국은 이 조치가 自國의 이익과 항의가 고려되지 않은 증거라고 여기

65) 註64와 같음.

66) FRUS 1900, No. 338(Inclosure 7), pp.107-108.

67) 『藍皮書』, 「中國第3號, 1900.」, 第32件, 1900. 2. 5(3. 5), 14쪽.

68) 『藍皮書』, 「中國第3號, 1900.」, 第11件, 1900. 2. 10(3. 10), 5쪽.

69) FRUS 1900, No. 316, 1899. 12. 29(1900. 1. 29), p.94.

70) 田保橋深, 「義和拳匪亂と日露」, 1069-1070쪽.

고 재차 해군 시위에 관한 안건을 본국에 강력히 요청하였다.⁷¹⁾ 결국 5국의 군함이 중국 해안에 정박하고 있는 상황 하에서, 청정부는 하는 수 없이 앞서 1900年 正月 20日의 上諭가 포함되어 있는 直隸總督의 布告를 3月 20日 字 京報에 게재하였다.⁷²⁾ 3개월 이상 지속된 5국공사와 청정부와의 교섭은 이로써 일단 마무리되었다. 그러나 바로 이틀전 3月 18日의 上諭는 열강의 기대와는 다른 것이었다.

各省의 鄉民들이 團을 만들어 自衛保家하는 행위는 본래 古人들의 서로 지켜주고 돕는 뜻에서 비롯된 것이니, 만일 分守를 편안히 여기고 법을 지키면 그들이 편히 여기는 것을 들어주는 것이 옳다. 그러나 그들 중 불순분자가 섞여있어 혹시라도 이를 틈타 教民과 충돌하지 않을까 걱정된다. (이는) 朝廷의 一視同仁이 본래 구분이 없음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해당 民은 마땅히 이 뜻을 받들어 사사로이 원한을 품고 亂을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하라⁷³⁾

이 논조는 앞서 12月 11日 字 上諭와 기본적으로 같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열강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청정부의 의화단에 대한 인식은 달라지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가 된다. 오히려 열강의 끈질긴 압력은 관료층 내에 배외인식을 확산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앞서 1900년을 전후해서 일부 보수관료층이 教案과 義和團에 대한 원론적 입장을 제시했다면, 4월에 들어서면서 이들은 공개적으로 의화단 세력을 招撫해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주장하였다. 예컨대 江西道監察御史 鄭炳麟의 4月 3日 上奏를 보면 다음과 같다.

義和團이 拳術을 연습하는 것은 본래 自衛保家하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그러나 教民이 (西)洋人을 믿고 良民(=非教徒)을 괴롭히고 官에서도 民教爭訟을 공정하게 처리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은 결국 仇教를 명목으로 군중을 선동하기에 이르른 것입니다. 그 중에는 불순분자도 있기는 하나 그 본심은 악하지 않습니다.... 생각컨대 私團(=義和團)을 官練으로 고치면 憂患이 점차 없어질

71) 『藍皮書』, 「中國第3號, 1900」, 第36件, 1900. 2. 16(3. 16), 16쪽.

72) FRUS 1900, No.356, 1900. 3. 13(4. 12), p.114.

73) 『檔案』上, 「上諭」, 光緒 26年 3月 18日, 80쪽.

것입니다. 청컨대 直隸總督과 山東巡撫에게 명하여 명망있는 道府大員을 團練局總辦으로 삼고 능력있고 성실한 正佐各員을 뽑아 그 일을 맡기십시오. 또한 공정한 紳士를 선발하여 團總으로 하면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⁷⁴⁾

여기서 주장하는 바는 義和團을 鄉團으로 편입시켜 官에서 통제하지는 것이다. 이 방법론의 전제조건은 義和團의 拳術 연습이 본래 自衛保家를 위한 수단일 뿐 反官의 성격이 없다는 것에서 연유하고 있다. 이 입장은 의화단의 招撫·利用을 주장하는 일파의 기본 논조이다.

반면 의화단의 진압을 주장하는 일파는 이와 정반대의 생각을 갖고 있었다. 청정부는 御史 鄭炳麟의 4월 3日字 上奏에 대해 同日 그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여 直隸總督 裕祿과 山東巡撫 袁世凱에게 奏할 것을 명하였는데,⁷⁵⁾ 이 사실은 청정부 내에서 의화단의 대책을 둘러싸고 심각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반영한다. 袁世凱의 4월 21日字 보고는 다음과 같다.

義和拳은 離卦教 중의 義和門으로 白蓮教와 同源입니다...여기에 入會한 자들은 비록 拳術을 연습한다고 하지만 실은 呪文을 외우고 神靈附體를 칭하며 槍을 가지고 춤을 추며...총괄해서 말하면 拳民들은 무리를 지어 돌아다니면서 매번 수백리 밖에서 재물을 약탈하므로 自衛保家할 수 없습니다. 또 官府에 항거하므로 도적을 체포할 수 없습니다. 평민을 약탈하여 지방을 소란스럽게 하므로 오로지 洋教(=기독교) 만을 仇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본래 기량이 없어 여러번 싸워도 매번 패하는데 어찌 大敵을 방비할 수 있겠습니까?⁷⁶⁾

이 보고에 의하면 의화단 진압을 주장하는 일파는 기본적으로 의화단을 白蓮教系統의 邪教로 규정하고, 의화단 자체의 약탈 행위에 초점을 맞추어 招撫의 不可를 주장하고 있었다. 裕祿의 입장도 마찬가지였다.⁷⁷⁾

74) 『檔案』上, 「御史鄭炳麟摺」, 光緒 26年 4月 3日, 84-85쪽.

75) 『檔案』上, 「山東巡撫袁世凱摺」(光緒 26年 4月 21日), 92-95쪽. 여기에 1900年 4月 3日의 上諭가 포함되어 있다.

76) 註75와 같음.

77) 林華國에 따르면 裕祿의 의화단 대책이 오히려 袁世凱보다 더 강경하였다고 한다. 仇敵運動을 匪徒가 일으킨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은 양자의 입장이 같으나, 裕祿이 처음부터 무력 진압

1900년 4월에 들어서면서 의화단의 대책을 둘러싸고 청정부 내에서는 이처럼 의견이 양립하고 있었다. 그러나 의화단의 세력은 수그러들줄 몰랐고 이에 대해 열강은 결국 派兵이라는 극단적 조치를 취하게 된다. 열강의 강경 조치는 보수배외파의 입지에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 이하 이 부분을 살펴보자.

2)列強의 派兵과 保守排外派의 세력 장악

1899년 12월 11日の 上諭를 문제삼아 발생한 열강의 청정부에 대한 압력은 결국 해군 시위라는 형태를 통해 일단 마무리되었으나 그러한 조치가 의화단의 세력을 막는데 어떤 영향을 준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의화단의 세력은 더욱 확대·발전하였다. 예컨대, 1900년 4월 말 直隸 涑水縣에서 발생한 소위 涑水教案에서 의화단은 官兵과 충돌하여 승리를 거두고 예전과는 달리 鐵路와 電信을 파괴하는 새로운 전술을 채택하였다. 이 사건을 계기로 열강은 總署와의 평화적 교섭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무력 간섭을 행하여 북경에 있는 공사관 보호를 위해 제1차 派兵을 감행한다.

涑水縣은 教民과 良民 간의 불화가 심했던 지역으로 1900년 4월 義和拳術이 직에까지 확대되면서 拳會가 조직된 곳이다. 이곳의 拳民들은 教民에게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4월 14일 涑水縣 高洛村에 모여 教民을 살해하고 가옥을 방화하였다. 分統 楊福同 등이 이곳에 파견되어 拳民을 체포·압송하였으나 소란은 계속되어, 24일에 2-3,000명의 拳民들이 오히려 楊福同 등을 살해하기에 이르렀다.⁷⁸⁾

이 사건은 제차 열강에게 간섭의 구실을 주었다. 특히 프랑스 선교사 웨이버(樊國梁, A.Favier)는 이 사태를 위기로 단정하고 프랑스공사 피천(畢盛, S.Pichon)에게 派兵을 강력히 요구하는 서신을 보냈다.⁷⁹⁾ 이에 프랑스공사는

을 강행하였던 반면, 袁世凱는 의화단 세력이 강한 지역에 미리 군대를 파견하여 그들의 움직임을 파악한다던가 현상을 걸어 주모자를 체포하고 鄉村의 族長을 이용하여 의화단 세력을 억제하려 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산동·직에 농촌 전역에 분포되어 있는 의화단 세력을 상대로 무력진압을 강행한 裕祿의 조치는 오히려 효과를 보지 못했고, 이 특장을 이용하여 사전에 의화단 세력의 움직임을 막으며 한 袁世凱의 정책은 상당한 효과를 발휘했다고 주장하였다(『義和團史事考』, 北京大學出版社 未刊本, 29-43쪽을 참고하라).

78) 『檔案』上, 「直隸總督裕祿到總署電報」, 光緒 26年 4月 24日, 101쪽.

당시 외교관의 首席公使였던 스페인공사 콜로간(葛絡干, B.J.de Cologan)에게 공동회담을 요청하였다.

4월 22일 11개국 외교단이 모여 개최된 제1차 회의에서 외교단은 청정부에게 의화단 진압을 위한 특별조치를 요구하기로 결정하였다.⁸⁰⁾ 이번의 결정 사항은 종래 5개국 외교단이 원칙적이고 추상적으로 義和團과 大刀會의 활동을 금지시키는 내용을 上諭에 표시하여 京報에 게재할 것을 요청했던 차원을 넘어, 금지의 구체적 내용을 열거하고 그 실행을 아울러 요구하는 방식이었다.⁸¹⁾ 또한 회의에서는 이 요구에 대해 5일 내에 만족할 만한 회답이 없을 시, 제2차 해군 시위를 감행한다는 것에 합의를 보았지만,⁸²⁾ 대다수의 공사들은 군대를 파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반대하였다. 특히 영국공사 맥도날드는 “나는 프랑스 신부가 이야기한 암울한 예칙을 믿을 수 없다. 나의 경험에 의하면 北京民의 외국인에 대한 태도는 온화하고 문명적이다”⁸³⁾라고 하여 派兵에 신중을 기하고 있었다.

總署는 이러한 4月 23日字 共同照會에 대해, ①이미 조정은 步軍統領衙門 등에 拳會嚴禁을 명하는 上諭를 내렸는데 그 내용이 照會의 것과 같고 ②總署는 재차 拳會禁止에 관한 上諭를 반복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회답하였다.⁸⁴⁾ 그러나 이 회답에 대해 열강은 불만의 뜻을 표시하고 28일에 다시 제2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여기서 프랑스공사 피천은 강경하게 派兵을 주장했지만 일단 접어두고, 總署에 다시 4月 23日字 照會의 내용에 관한 명확한 조치와, 그들이 요청했다고 하는 上諭를 각국에 공식적으로 통보를 해줄 것을 요구하기로 하였다.⁸⁵⁾

79) 『藍皮書』, 「中國第3號, 1900」, 第273件(附件5), 1900. 4. 21(5. 19), 72-73쪽.

80) 특별조치의 내용은 ①拳會의 操練에 참여하거나 혹은 가두에서 소란을 선동하는 자 및 反洋의 揭帖을 인쇄·살포하는 자는 모두 체포할 것 ②의화단 집회장소의 소유자와 감독자는 모두 처벌할 것 ③진압을 소홀히 하는 官員 혹은 폭도의 범행을 방조하는 자는 징벌할 것 ④살인·방화를 기도하거나 재물을 약탈하고 생명을 해치는 자는 엄벌할 것 ⑤소란 중에 의화단을 방조하는 자는 엄벌할 것 ⑥북경·직예 기타各省에 이 조치를 공포하여 사람마다 알게 할 것 등이다. (『藍皮書』, 「中國第3件, 1900」, 第273件(附件6), 1900. 4. 23(5. 21), 74쪽).

81) 村松祐次, 『義和團の研究』, 167쪽.

82) 『藍皮書』, 「中國第3號, 1900」, 第42件, 1900. 4. 23(5. 21), 18쪽.

83) 『藍皮書』, 「中國第3號, 1900」, 第273件, 1900. 4. 23(5. 21), 72쪽.

84) 『藍皮書』, 「中國第3號, 1900」, 第47件, 1900. 4. 27(5. 25), 19쪽.

이 照會의 회답에는 4월 19日, 26日, 27日의 上諭가 같이 첨부되었는데 모두 拳會禁止를 명한 것이었다.⁸⁵⁾ 이로써 열강의 요구는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셈이었다. 또한 4월 29日 영국공사 맥도날드는 總署首席大臣 慶親王에게 의화단의 체포를 위한 유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아냈다.⁸⁷⁾ 청정부가 이렇게 拳會禁止의 上諭를 내린 것은 열강의 계속적인 압력도 있었지만, 3월 말 이후 京師에 만연하여 도처에서 拳術을 익히고 있을 정도로 의화단 세력이 확대된 것에 대한 우려의 표시였을 것이다.⁸⁸⁾ 특히 4월 19日의 上諭는 沂州事件의 발생에 대해, 26日과 27日의 上諭는 楊福同이 拳民에 의해 살해되었다는 충격적 사건과 관계되어 있음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涑水縣의 의화단 세력은 계속 확대되어 29일에는 涑州를 점령하여 涑州와 琉璃河 간의 철로를 파괴하고, 5월 1일에는 북경 근처의 豐台驛을 훼손시켰다. 11개국 외교단은 사태의 위급함을 인식하고 이날 즉시 제3차 회의를 개최하여 만장일치로 公使館 보호를 위한 衛兵 파견을 결의하였다.⁸⁹⁾ 이로써 열강군 약 400여명이 3일 북경에 도착하였다.

4월 29일과 5월 1일 잇달아 의화단에 의해 철도가 파괴되자 청정부는 直隸總督 裕祿을 통해 提督 聶士成에게 철로를 보호하고 의화단을 해산시킬 것을 명하였다.⁹⁰⁾ 아울러 5월 2日 上諭를 통해 “최근 들으니 拳民 중에 游勇들이 많이 섞여있어 소요를 일으키고 심지어는 武員을 살해하며 鐵路·電信을 방화·훼손하기에 이르렀다고 한다...파병된 統兵大員 및 지방의 文武官은 신속히 주모자를 체포하고 나머지는 해산시키도록 하라”⁹¹⁾는 명을 내렸다. 그러나 이 논조도 현 사태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는 있으나 마찬가지로 拳民 세력 중의 游勇 만을 문제시하고 있을 뿐이었다.

의화단이 鐵路와 電信 등을 파괴하는 행위가 청정부와 열강 양측 모두에

85) 『藍皮書』, 「中國第3號, 1900」, 第48件, 1900. 4. 29(5. 27), 20쪽.

86) 「有關義和團上諭」, 『義和團』 4, 13-14쪽.

87) 『藍皮書』, 「中國第3號, 1900」, 第274件, 1900. 5. 1(5. 28), 76-77쪽.

88) 日·佐原篤介, 『拳亂紀聞』, 『義和團』 1, 111쪽.

89) 『藍皮書』, 「中國第3號, 1900」, 第53件, 1900. 5. 2(5. 29), 21쪽.

90) 『檔案』上, 「軍機處寄直隸總督裕祿電旨」, 光緒 26年 5月 3日, 107쪽.

91) 『檔案』上, 「上諭」, 106쪽.

게 위기감을 주었음은 분명할 것이다. 이에 대해 열강은 즉각 派兵을 결정하였으나 청정부는 단지 철로 보호와 의화단 해산 만을 명하였고, 이를 위해 파견된 군대에게 과도한 진압을 자제할 것을 명하였다.⁹²⁾ 이러한 논조는 청정부의 정책 결정에서 의화단을 招撫·利用하자는 일파의 입장이 적극적으로 반영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된다.⁹³⁾

이같은 조치는 漢人督撫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張之洞은 5월 4日字 電報에서 무력으로 拳會를 진압할 것을 요청하였고,⁹⁴⁾ 12日 劉坤一도 같은 내용의 電報를 總署에 보냈다.⁹⁵⁾ 그러나 이런 전보가 당시 청정부의 정책을 바꾸게 할 수는 없었다.

약간의 과장은 있겠지만 당시 북경에 있던 외국인들의 기록을 보아도 청정부의 정책이 어떠한지를 파악하는 일은 어렵지 않다. 總稅務士 영국인 하트(赫德, R.Hart)는 “5월 1일은 中國軍이 의화단을 공격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2일에는 중국군과 의화단이 연합하여 우리에게 대항할까 두려워하였다”⁹⁶⁾라고 당시 상황을 기록하고 있었다. 미국공사 콩거도 5월 7일 국무장관 헤이(J.Hay)에게 보내는 電報에서 “拳會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保定府의 철로 운행은 잠시 중단되었고 北京-漢口線의 작동도 정지되었다...중국 정부는 拳會를 진압할 수도 없고 하려 하지도 않는다. 군대도 拳匪를 공격하지 않는다”⁹⁷⁾라고 보고하였다. 계속해서 5월 8日字 콩거의 보고를 조금 길기는 하지만 인용해보자.

...그러나 지난 두달동안 거의 拳匪들이 체포·처벌받지 않았습
니다. 병사들은 그들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형제로 여깁
니다. 上諭의 내용은 拳會에 대해 적대적 어조이나 실제로는 암묵

92) 5월 7日 上諭(『檔案』上, 『軍機處寄大學士榮祿等上諭』, 116쪽)와 5월 10日 上諭(『檔案』上, 118-119쪽)를 참고하라.

93) 예컨대 刑部尙書兼順天府府尹인 趙舒繩과 御史 許祐身 등은 의화단의 招撫·利用을 주장하였고, 御史 管廷獻 등도 파병군의 과도한 진압을 비난하였다 (『檔案』上, 108-109, 115, 122-124쪽).

94) 『檔案』上, 『湖廣總督張之洞電報』, 112쪽.

95) 『檔案』上, 『兩江總督劉坤一到總署電報』, 121쪽.

96) 『中國海關與義和團運動』(中國近代經濟史資料叢刊編輯委員會 編, 北京:中華書局, 1983), 1900年 5月 7日(6. 3)字, 6-7쪽.

97) FRUS 1900, Telegram, p.139.

적 후원자로서 그들과 연합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중국이 외국인을 보호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상황은 청정부 각료 내 심각한 분열 때문에 야기된 것입니다. 한편은 강력한 排外派로 알려진 端王·剛毅·崇綺·徐桐 등의 세력이고, 다른 한편은 慶親王을 중심으로 한 總署大臣들입니다. 그러나 慶親王을 제외한 나머지 總署大臣들은 西太后와의 직접 면담이 불가능합니다. 軍權을 장악하고 있는 榮祿은 西太后的 조카로 배외주의자이면서도 端王과는 사이가 좋지 않아 어느 한쪽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상황 하에서는 西太后를 지지할 것입니다. 西太后 역시 본래 배외감정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믿을 만한 사람이 있으면 그의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현재 중국 사회는 전반적으로 배외감정이 고조되어 있습니다. 청정부는 의화단과 대처하려 하지도 않고 또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만일 청정부가 정말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면 무서운 반란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⁹⁸⁾

이 보고서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청정부 각료 내의 분열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서 榮祿의 입장이 문제가 된다. 그는 西太后가 가장 신임하고 있는 인물이나 端王 일파와는 달리 의화단의 招撫·利用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西太后 측근인 慶親王도 의화단의 진압을 주장하고는 있었지만 우유부단한 성격때문에 西太后에게 별다른 영향력을 발휘하지는 못했을 것이다.⁹⁹⁾ 때문에 西太后 측근 중 의화단 진압의 입장을 표명할 수 있었던 사람은 榮祿 외에는 없었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청정부의 방침이 의화단을 招撫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사실은 榮祿의 입지가 端王 일파의 부상에 반비례하여 좁아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다.

청정부의 의화단 招撫 입장은 다음과 같은 일련의 정책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보여지고 있었다. 5월 9일에는 拳匪를 설득·해산시킨다는 명분으로 軍機大臣이면서 順天府府尹인 趙舒翹를 涿州에 파견하여 의화단의 정세를 살피게 하였고,¹⁰⁰⁾ 10일에는 고위대신을 소집하여 의화단 대책을 密議하였다. 「拳

98) FRUS 1900, No.486, 1900. 5. 8(6. 4), p.140.

99) 慶親王은 總署의 입장을 대표해서 義和團의 진압을 奏請하기는 했지만(예를 들어 1900年 正月 20日의 上奏가 대표적이다) 다른 자리에서 자신의 의견을 강력하게 제시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 그의 의견이 언급된 자료는 거의 없다.

100) 「檔案」上, 「上諭」, 光緒 26年 5月 10日, 118쪽. 명분은 拳匪의 해산·설득을 위해서였지만 실제

亂紀聞』에 의하면 密議時 榮祿과 禮王 만이 의화단의 招撫에 반대하였다고 한다.¹⁰¹⁾

계속해서 西太后는 13일 端王과 剛毅의 요청에 따라 북경성의 수비가 허술하다는 이유로 董福祥의 入城을 명하였다.¹⁰²⁾ 그는 군대를 이끌고 성내로 들어오면서 洋人剿滅을 선언하고, 행렬의 선봉에 의화단을 내세웠다.¹⁰³⁾ 영국 공사 맥도날드는 그의 入城에 대해 본국의 외무대신에게 보낸 14日字 편지에서 “西太后는 大臣을 소견할 때 공개적으로 외국인을 북경에서 쫓아내기를 희망했다고 한다. 동시에 董福祥의 부대는 총진격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다. 주의해야 할 것은 그가 지휘하는 武衛後軍인 甘軍이 최신키의 무기를 소유하고 충분한 전투경력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¹⁰⁴⁾라고 우려를 표시하고 있었다.

각국은 衛兵 파견에 이어 14일 재차 8개국 연합군 약 2,000여명을 결성하여 天津에서 北京으로 진공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바로 이 날 청정부는 열강의 기파 인물인 端王을 總署首席大臣으로, 啓秀·那同·溥興 등을 새로이 總署大臣으로 임명하였다.¹⁰⁵⁾ 이제 청정부와 열강의 무력충돌은 피할 수 없게 되었다.

3. 庚子事變과 이후 保守排外派의 몰락

1) 庚子事變의 발발 과정

5월 14일 연합군 2,000여명은 영국 해군중장 세이무어(西摩, E.H. Seymour)를 사령관으로 天津에서 北京을 향해 출발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落堡와 廊

로는 의화단의 정세를 살피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었다고 한다 (吳永, 「庚子西狩叢談」, 『義和團』 3, 438쪽).

101) 『拳亂紀聞』, 『義和團』 1, 124쪽.

102) 그는 北洋軍 중 (武衛)後軍 즉, 甘軍의 지휘관으로 이미 4월 29일과 5월 1일 및 2일 세차례 西太后를 알현하여 열강 군대의 入京을 지지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拳亂紀聞』, 『義和團』 1, 116쪽).

103) 『拳亂紀聞』, 『義和團』 1, 126쪽.

104) 『藍皮書』, 「中國第3號, 1900」, 第1件, 1900. 5. 14(6. 10), 88쪽.

105) 「有關義和團上諭」, 『義和團』 4, 17쪽.

坊에서 의화단의 저항에 밀려 더이상 진격하지 못한 채 고립되었다. 다음날 15일 연합군의 진공이 저지되었음을 알지 못했던 일본 서기관 杉山彬은 이들을 마중하기 위해 공사관을 나와 永定門을 지나던 중 董福祥의 甘軍에 의해 살해되었다.

董福祥은 원래 군사계통상 北洋軍을 총지휘하는 榮祿의 지휘를 받아야 했다. 그런 점에서 이 살해 사건은 그가 이제 榮祿의 통제를 벗어나 독자적 행동이 가능함을 보여준다.¹⁰⁶⁾ 杉山彬의 살해 사건에 대해 청정부는 7일 공식입장을 발표하여 유감의 뜻을 표시하고 兇徒의 체포를 명하기는 했으나 살해의 주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¹⁰⁷⁾

당시 의화단 세력은 이미 북경성까지 진입하여 약탈·방화를 계속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청정부는 5월 17일, 18일, 19일 잇달아 上諭를 반포하여 우려의 뜻을 표시하기는 했지만,¹⁰⁸⁾ 이것이 의화단을 招撫한다는 입장에 어떤 동요를 가져오는 조치는 아니었다.¹⁰⁹⁾ 오히려 17일의 또 다른 上諭에서는, 裕祿에게 聶士成으로 하여금 天津 부근 철로가 있는 곳에 가서 入京하는 각국 군대를 실력으로 저지하고 大沽의 방위를 철저히 하도록 명함으로써, 열강군과 대항하겠다는 입장을 처음으로 표명하였다.¹¹⁰⁾

端王 일파와 榮祿 그리고 漢人督撫 세력은 열강군의 入京에 대해 각각 발빠른 조치를 취했다. 趙舒翹에 뒤이어 涿州의 의화단 세력을 살피고 돌아온 剛毅는 西太后에게 開戰을 역설하였고,¹¹¹⁾ 반면 榮祿은 사태의 수습을 위

106) 日·佐原篤介, 『拳事雜記』, 『義和團』 1, 261쪽.

107) 『檔案』 上, 『上諭』, 光緒 26年 5月 17日, 133쪽.

108) 『檔案』 上, 『上諭』, 光緒 26年 5月 17日, 132-133쪽. 5月 18日, 136쪽. 5月 19日, 140-141쪽.

109) 『監皮書』, 『中國第3號』, 1900., 第2件, 1900. 8. 27(9. 20), 93쪽.

110) 『有關義和團上諭』, 『義和團』 4, 18-19쪽.

111) 剛毅는 의화단 조사보고에서 「제가 말 위에서 拳術을 연습하는 의도가 무엇이나고 몰았더니 모두 自衛保家를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또 모여서 무엇을 하느냐고 몰았더니 모두 敎民에게 피해를 입히기에 원수를 갚기 위해 모였다고 하였습니다...」라고 언급하였다(『檔案』 上, 『協辦大學士剛毅等摺』, 光緒 26年 5月 18日, 137-138쪽). 그는 이 보고를 근거로 하여 19일 밤에 涿州에서 回京하여 西太后에게 開戰을 역설하였다고 한다(『拳亂紀聞』, 『義和團』 1, 134쪽). 어떤 기록에서는 剛毅가 5월 24일에 涿州에서 돌아왔기 때문에 21일에 열린 御前會議에 참가할 수 없었다고 하였지만(『傳聞錄』, 『崇慶傳信錄』, 『義和團』 1, 50쪽) 믿기 어렵다. 후술하겠지만 御前會議 첫날인 5월 21일 전체회의에 앞서 고위대신들 간에 開戰의 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측되는데, 이 자리에 剛毅가 제외되었을리는 없다고 생각한다. 이는 西太后가 剛毅에게

해 5월 16일 軍機大臣會議에서 裕祿을 대신하여 李鴻章을 직예총독으로 할 것을 제안하였다.¹¹²⁾ 여기서 榮祿이 사태수습을 위해 李鴻章을 지목한 것은 흥미롭다. 그는 端王 일파의 주장 즉, 의화단을 招撫·利用하고 열강군의 入京을 막기 위해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강경론에 대응하기 위해 漢人勢力의 힘을 빌려고 한 것이었다. 같은 西太后 측근의 보수세력이면서도 의화단 대책을 둘러싸고 榮祿은 최후에 漢人勢力을 의지할 수 밖에 없었다. 劉坤一과 張之洞도 사태의 위급함을 인식하고 19일 拳會의 진압을 요구하는 電報를 總署에 보냈다.¹¹³⁾ 아울러 그들은 榮祿에게 電報하여 그가 拳會의 진압과 열강의 무력간섭을 막을 유일한 인물임을 강조하였다.¹¹⁴⁾

그렇지만 열강과의 전쟁을 피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20일 새이무어가 지휘하는 8개국연합군이 의화단의 저항으로 天津과 北京 간에 고립되어 있는 상황 하에서, 열강군은 大沽의 해군사령관 羅榮光에게 최후통첩을 보내 21일 새벽 2시까지 砲臺를 양도할 것을 요구하였다.

西太后는 바로 이날 御前會議를 소집하여 王大臣 및 九部六卿과 함께 열강과의 전쟁과 의화단 대책을 논의하였다. 대신들을 부르기 전에 西太后는 먼저 王公·貝勒 및 榮祿과 剛毅를 불러 밀의했는데¹¹⁵⁾ 앞서의 일련의 과정으로 보아 이 자리에서 이미 開戰의 뜻이 결정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곧 이어 열린 어전회의 첫날의 상황도 開戰과 의화단 대책을 둘러싸고 쟁론이 벌어졌지만 開戰을 불사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다.¹¹⁶⁾ 이날 上諭에서는

19일 신속히 回京할 것을 명하는 上諭를 내린 것으로 보아도 분명할 것이다 (中國第一歷史檔案館編輯部 編, 『義和團檔案史料續編』 上冊, 北京:中華書局, 1900, 601쪽). 따라서 剛毅는 바로 西太后의 명에 따라 바로 回京하여 의화단 대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했을 것이다. 歐陽耀峰의 「關於剛毅從涿州回京日期的更正」(『近代史研究』 1987年 5期)도 필자와 같은 입장이다.

112) 『拳亂紀聞』, 『義和團』 1, 130쪽.

113) 『劉坤一張之洞寄總署電』, 光緒 26年 5月 19日 (『有關東南互保資料』, 『義和團』 3, 326-327쪽).

114) Chester C. Tan, The Boxer Catastrophe, Columbia Univ., 1975, p.77.

115) 佚名, 『綜論義和團』, 『義和團史料』 上 (北京社會科學院近代史研究所近代史資料編輯組編, 北京:社會科學出版社, 1982), 164쪽.

116) 御前會議에 관한 기록은 자료마다 조금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대개 첫날의 경우 許景澄·袁昶 등이 의화단 진압을 주장한 반면 剛毅·端王 등은 의화단을 이용하여 열강과 전쟁할 것을 주장하였다. 西太后는 의견을 경청하는 입장이었지만 전체적으로 후자의 발언이 더 강력하였다 (『庚子國變記』, 『義和團』 1, 12-13쪽. 『崇陵傳信錄』, 『義和團』 1, 48-48쪽 참조).

裕祿과 轟士成에게 來京하는 열강군을 실력으로 지지할 것과 拳民을 ‘義民’으로 규정하고 剛毅와 董福祥에게 이들을 소집하여 군에 편입시킬 것을 명하였다.¹¹⁷⁾ 계속해서 23일 각국 공사에게 24시간 내 북경을 떠날 것을 명하였다.¹¹⁸⁾ 24일에는 교섭을 위해 總署에 가던 독일공사 케틀러(克林德, Kettler)가 端王의 영향권 안에 있던 虎神營의 官兵에게 살해되고¹¹⁹⁾ 甘軍과 拳民이 공사관을 포위·공격하기 시작하였다.¹²⁰⁾ 5월 25일 청정부는 내외에 전쟁을 알리는 上諭를 공포하였다.¹²¹⁾

2) 開戰 이후 상황과 保守排外派의 몰락

宣戰布告는 청정부 내에 端王 일파의 보수세력이 굳건히 자리잡았음을 내외에 알리는 의미도 갖고 있었다.¹²²⁾ 그러나 전세가 청에게 불리해지면서 청정부 내 관료들 간에는 재차 대립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우선 榮祿은 宣戰의 上諭가 공포된 5월 25일 李鴻章에게 이날 이후 北京의 諭旨를 준수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의 서신을 보냈다.¹²³⁾ 결국 李鴻章·劉坤一·張之洞 등은 宣戰을 인정하지 않기로 하고 5월 30일 열강과 상호불가침협정 즉, 東南互保條約을 체결하였다.

대립의 모습은 上諭를 통해서도 드러나고 있었다. 예컨대 5월 29일의 上諭에서는 “외국과 宣戰이 개시된 이래 우리 皇太后는 여러차례 內帑을 發하여 將士·義民에게 (자금을) 지급하였다. 현재 時局이 어려우니 너희 將士 등은 마땅히 이에 보답하여 공을 세우도록 하라”¹²⁴⁾고 하면서도, 李鴻章 등에

117) 『檔案』上, 「軍機處寄直隸總督裕祿等上諭」, 光緒 26年 5월 20日, 145쪽. 「軍機處寄協辦大學士剛毅等上諭」, 光緒 26年 5월 20日, 145-146쪽.

118) 『檔案』上, 「照會」, 光緒 26年 5월 23日, 152쪽.

119) 袁昶, 「亂中日記殘稿」, 『義和團』1, 340쪽.

120) 「庚子國變記」, 『義和團』1, 16쪽.

121) 『檔案』上, 「上諭」, 光緒 26年 5월 25日, 162-163쪽. 청정부는 후에 의화단과 연합하여 열강과 전쟁한 부분에 관한 자료를 『實錄』에서 모두 제외시켜버렸다. 이 上諭도 『實錄』에는 실려있지 않다.

122) 『藍皮書』, 「中國第3號, 1900」, 第225件, 1900. 6. 5(7. 1), 61쪽.

123) 『藍皮書』, 「中國第3號, 1900」, 第222件, 1900. 6. 3(6. 29), 59쪽. 한편 開戰 이후 漢人督撫層은 계속해서 義和團 진압과 公使館 보호를 내용으로 하는 奏를 북경에 보냈다. 5월 24일에는 張之洞을 포함한 8인의 督撫 명의로 上奏를 하였고 29일에는 張之洞과 劉坤一이 계속해서 전쟁 不可의 입장을 奏請하였다 (Chester C. Tan, *The Boxer Catastrophe*, pp.83-84).

게 보낸 電旨에서는 “兵民이 모두 憤하여 在京公使館이 위급한 상태이나 우리는 여전히 힘껏 보호하고 있다. 이것이 최근의 정세이다”¹²⁵⁾라고 하여 공사관을 보호하고 있음을 알려주었다. 일본의 在上海 小田切 總領事代理는 青木 外務大臣에게 보낸 6月 8日字 電報에서 앞의 5月 29日字 上諭는 端王 일파에 의해, 電旨는 西太后에 의해 작성된 것이라고 보고하였다.¹²⁶⁾ 또한 西太后가 이날 榮祿에게 공사관에 가서 각국 사신을 위문하도록 명했던 것이라든가,¹²⁷⁾ 端王이 團民 60여명을 이끌고 궁내로 침입하여 황제를 살해하려 했으나 西太后의 저지로 실패했다는 기록¹²⁸⁾으로 미루어 보아 端王과 西太后 간에 입장의 차이로 정책의 일관성이 무너지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西太后의 태도가 이처럼 변화하게 된 이유는 拳民의 행위가 官에서 통제할 수 있는 수준을 이미 넘어서고, 開戰 이후 공사관 공격이 제대로 진척되지 못한 것 때문이 아닐까 생각된다.¹²⁹⁾ 西太后는 6월 3일 처음으로 各出使大臣에게 보낸 電旨에서, “현재 이미 엄히 飭을 내려 병사를 이끌고 가서 공사관을 보호하도록 했고 亂民(=義和團)들은 法을 바로하여 엄벌하도록 하겠다”¹³⁰⁾는 의도를 각국 公使에게 잘 설명하도록 하였다. 이 電旨가 누구에 의해 기초되었는지는 정확한 기록이 없으나, 6월 7일 러시아·일본·영국에 보낸 和議國書가 榮祿과 王文韶 등에 의해 기초되었다는 기록¹³¹⁾으로 미루어 보아 동일인물에 의해 쓰여졌을 것으로 추측된다. 王文韶는 戶部尙書兼協辦大學士로 西太后의 측근이지만 의화단에 대해서는 榮祿과 같은 입장을 갖고 있었

124) 『檔案』上, 「上諭」, 184쪽.

125) 『檔案』上, 「軍機處寄李鴻章等電旨」, 186-187쪽.

126) 『日本外交文書』北清事變(中)(日本外務省編, 日本國際聯合協會, 1956), 1097文書, 1900. 6. 8(7. 4), 81-84쪽.

127) 英·樸苗南姆威爾, 『庚子使館被圍記』, 『義和團』2, 264-265쪽. 景善, 『景善日記』, 『義和團』1, 74쪽. 『景善日記』의 사료적 가치에 대해 丁名稱은 「景善日記는 白克浩司僑造的」(『義和團運動史論文選』, 北京:中華書局, 1984)에서 이 책은 알려진 것처럼 백하우스(白克司, B.Backhouse)가 열강군의 북경 점령 후 나흘째인 1900년 7월 25일(8. 18) 英國兵이 景善의 저력을 약탈하면서 얻은 것이 아니라, 그가 중국인의 도움을 빌어 僞作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렇지만 이 책의 많은 부분은 다른 기록과 일치하고 있다. 이 경우도 그러한 예에 속한다.

128) 『載瀾欲謀廢立』, 『清朝野史大觀』卷4, 139쪽. 『景善日記』, 『義和團』1, 74쪽.

129) 『景善日記』, 『義和團』1, 75쪽.

130) 『檔案』上, 「軍機處寄出使俄國大臣楊儒等電旨」, 光緒 26年 6月 3日, 202-203쪽.

131) 『亂中日記殘稿』, 『義和團』1, 341쪽.

다. 그러나 端王 일파가 이러한 움직임에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에 대한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아마도 이들 모르게 일이 추진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上諭에서는 여전히 의화단과 연합하여 抗戰할 것을 명하는 기록이 보이고 있다.¹³²⁾

그렇지만 6월 18일 연합군에 의해 天津이 함락되면서 상황은 변화하였다. 즉, 天津 함락을 계기로 端王 세력은 위축되고 西太后는 공식적으로 和議를 거론하게 되었던 것이다.¹³³⁾ 6월 21일 上諭에서는 공식적으로 ‘亂民’ 곧, 義和團을 진압하겠다는 뜻을 밝히고,¹³⁴⁾ 미국·독일·프랑스에게도 和議를 요청하는 國書를 보냈다.¹³⁵⁾ 아울러 22일에는 공사관 보호가 조정의 기본적 뜻을 거듭 확인하였다.¹³⁶⁾ 端王은 이것에 노골적 반감을 표시하였으나 西太后에 의해 묵살되었다고 한다.¹³⁷⁾

西太后의 和議 요청이 공식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열강은 이것에 응하지 않았다. 이들은 북경을 함락하기 이전에는 청정부와 和議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¹³⁸⁾ 이미 天津戰鬪에서 聶士成的 군대를 잃은 청정부는 7월 1일 剛毅의 천거로 당시 長江水師提督으로 있었던 前山東巡撫 李秉衡에게 榮祿과 함께 北洋軍을 통솔하게 하는 파격적 조치를 내렸다.¹³⁹⁾ 李秉衡은 入京하여 西太后를 소견한 자리에서 전쟁을 계속할 것과 ‘義民’을 招撫·利用할 것을 주장하였다고 한다.¹⁴⁰⁾

132) 『檔案』上, 「軍機處寄各省督撫上諭」, 光緒 26年 6月 7日, 221-222쪽. 「軍機處寄南北兩大臣上諭」, 光緒 26年 6月 9日, 239쪽. 이들 자료도 『實錄』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133) 『藍皮書』, 「中國第3號, 1901」, 第351件, 1900. 7. 12(8. 6), 223쪽.

134) 『檔案』上, 「上諭」, 327-328쪽.

135) 『檔案』上, 328-329쪽.

136) 『檔案』上, 「軍機處寄署理福州將軍善聯等上諭」, 339쪽.

137) 『庚子國變記』, 「義和團」, 1, 19쪽.

138) 『藍皮書』, 「中國第1號, 1901」, 第51件, 1900. 6. 22(7. 18), 136쪽.

139) 『檔案』上, 「上諭」, 光緒 26年 7月 1日, 385쪽.

140) 李秉衡은 長江水師提督으로 있을 때 南方督撫들이 拳匪의 剿滅을 주장하는 上奏에 서명하기도 하였다. 開戰 이후 劉坤一과 張之洞은 열강과 東南互保를 체결하는데 그의 존재를 부담스러워하였다. 마침 청정부가 宣戰 직후 各省督撫에게 「馳赴京師 聽候調用」의 命을 내리자 그를 北上시켜 장예를 제거하고자 했다 (Chester C.Tan, *The Boxer Catastrophe*, p.78). 西太后가 그를 소견하는 자리에서 南方督撫들과의 上奏 문제를 합안하자, 그는 張之洞이 자신의 이름을 쓴 것에 불과한 것이고 자신과는 무관하다고 하였다 (『庚子國變記』, 「義和團」, 1, 20쪽).

端王 일파는 天津 함락 후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 무고한 良民을 白蓮教徒라는 이유로 북경 시가에서 살해하는 등 공포적 분위기를 조성해가고 있었다.¹⁴¹⁾ 수세에 몰린 그들에게 李秉衡의 재등장은 새로운 활력을 주었다. 西太后가 李秉衡을 召見하고 이틀 후인 7월 3일에 許景澄·袁昶이 살해되고 17일에는 聯元·立山·徐用儀 등이 살해되었다. 그들이 왜 살해되었는지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의화단에 대한 진압을 일관되게 주장한 점, 어전회의에서도 전쟁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는 점, 端王 일파와 개인적으로 감정이 좋지 않았다는 점 등이 작용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¹⁴²⁾ 따라서 이들의 살해에는 端王 일파가 관여했을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이들이 살해된 시점은 연합군이 이미 천진에서 북경을 향해 출발하여 청군의 패배가 거의 확실해졌을 때였다. 端王 일파는 아마도 이러한 혼란상황을 이용하여 이들을 살해했을 것이다.¹⁴³⁾

그러나 7월 21일 연합군에 의해 북경이 점령되면서 보수세력은 몰락의 길을 걷게 되었다. 李秉衡은 북경 함락 직전 자살하였고 剛毅·毓賢·徐桐·啓秀·趙舒翹 등은 自盡 혹은 처형되었으며, 주모자인 端王은 죽음은 면했으나 新疆에 억류되었다.¹⁴⁴⁾ 의화단 세력을 이용하여 세력을 장악하려 했던 이들

141) 仲芳氏, 「庚子記事」, 「庚子記事」(中國社會科學院近代史資料編輯室 編, 北京:中華書局, 1987年重印本), 23·26쪽. 그 이유를 小林一美는 후에 開戰에 반대한 許景澄과 袁昶을 처형했듯이 邪敎인 白蓮敎처럼 청조 체제에 반대하는 자들을 처형함으로써 일반민중에게 反清을 못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하였다(小林一美, 『義和團戰爭と明治國家』, 汲古書院, 1986, 320-322쪽).

142) 許景澄·袁昶이 살해된 결정적 이유는 光緒 26年 6月 27日 上奏 때문이라고 한다. 이 奏請은 毓賢·裕祿·董福祥·徐桐·剛毅·趙舒翹 등 의화단 비호세력을 비난하고 이들의 정벌을 강력히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袁昶, 『袁昶奏稿』, 『義和團』 4, 165-166쪽). 그러나 당시 상황으로 보아 그들이 이렇게 직접적인 비난의 내용을 上奏했다는 점은 믿기 힘들다(Chester C.Tan, The Boxer Catastrophe, pp.106-108). 그러나 이 奏가 아니라도 의화단운동 중 이들은 내내 의화단 진압을 주장하였고 어전회의 상에서도 端王 일파와 대립하였기 때문에, 당시 端王 일파가 위축된 세력을 회복하기 위해 계속 반대입장에 서있던 이들을 제거 대상으로 지목하였으리라는 점은 쉽게 추측할 수 있다. 聯元·立山·徐用儀의 경우도 역시 의화단에 대한 입장이 袁昶 許景澄과 같기는 했지만 적극적으로 나서서 반대하지는 않았다. 자료에 의하면 이들은 개인적으로 端王 일파와 관계가 좋지 않았다고 한다(『清史稿』, 列傳 253, 12763-64쪽. 『崇陵傳信錄』, 『義和團』 1, 51쪽. Chester C.Tan, The Boxer Catastrophe, p.108 등을 참고하라).

143) 端王 일파는 이들 뿐 아니라 王文韶·慶親王·那桐 등도 살해하려 했지만 일강군에 의해 북경이 함락되는 바람에 뜻을 이루지 못했다고 한다(『庚子國變記』, 『義和團』 1, 22쪽. 『崇陵傳信錄』, 『義和團』 1, 52쪽).

144) 「辛丑和約條文」, 『義和團』 4, 494-495쪽.

은 의화단운동이 열강에 의해 진압됨에 따라 같은 운명을 견게 되었던 것이다.

結

이상에서 義和團運動 시기 청정부·열강·의화단과의 관계를 보수배외세력의 움직임의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淸日戰爭 후 청정부 내에는 光緒帝 측근의 帝黨 세력과 西太后 휘하의 后黨 세력이 대립하고 있었다. 또한 仇教運動이 山東을 중심으로 다시 활발히 일어나고 있었으나 청정부의 입장은 예전과 마찬가지로 주모자를 체포하고 나머지는 해산시키는 소극책이었다. 당시 山東巡撫였던 李秉衡은 敎民과 선교사의 良民에 대한 피해때문에 敎案이 발생한다는 전제 하에, 그 대책으로 民敎爭訟時 지방관의 공정한 판결과 선교사의 간섭 배제를 주장하였다. 이러한 입장은 후임 巡撫 張汝梅와 毓賢도 마찬가지였는데 바로 이 때문에 이들은 모두 열강의 압력으로 巡撫職을 물러나야 했다.

한편 1898년의 政變으로 앞서 帝黨의 세력은 완전히 몰락하고 보수세력이 청정부 내에서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西太后는 政變時 기민한 활약을 보였던 榮祿을 중심으로 그의 체제를 확고히 구축하였다. 또한 光緒帝의 폐위문제를 둘러싸고 열강 및 국내여론의 반응이 좋지 않자 光緒帝의 후계자를 세우는 방법을 채택하여 불만을 무마하려 하였다. 이 과정에서 皇嗣의 父인 端王이 새로이 실권자로 등장하여 剛毅·徐桐·啓秀·崇綺 등 보수파의 중심인물로 부각되었다.

端王 일파는 1900년을 전후하여 毓賢을 집속하면서 의화단 세력에 주목하기 시작하였고, 이후 의화단 세력이 점차 북경으로까지 확산·발전되는 것을 보고 의화단을 招撫·利用하는 방법을 생각하였다. 반면 같은 西太后 측근의 보수세력이면서도 榮祿은 의화단의 진압을 주장하였다. 한편 의화단 대책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열강의 압력이 적극화되어가고 심지어 무력 시위를 불사했음에도 불구하고, 西太后의 청정부는 拳會 내의 불순분자 만을 문제로

삼고 拳會 자체에 대해서는 문제시하지 않는 원칙을 고수해왔다. 그렇지만 청정부의 기본 입장과 이것을 허용하지 않는 열강의 입장은 타협점을 찾기 어려웠고 결국 사태는 열강군의 派兵, 청정부의 宣戰으로 발전하였다. 이러한 극단적 상황은 端王 일파의 부상과 떼어내서 설명하기 어렵다.

劉坤一·張之洞 등 漢人督撫層은 의화단 진압을 청정부에게 계속 요청했으나 적극적 반대는 하지 못했다. 北京과 거리가 멀다는 지리적 이유도 있었겠지만 그들은 실질적 힘의 소유자인 西太后의 정책을 정면에서 반발하지는 못했던 것이다.

같은 보수세력이면서도 榮祿은 고립을 피하기 위해 漢人督撫層과 결탁하였다. 劉坤一·張之洞은 의화단세력을 이용하여 열강과 전쟁을 하려는 청정부의 의도를 간파하고, 榮祿에게 서신을 보내 그가 궁정에서 가장 중요한 관리로서 왕조를 구제할 신성한 의무가 있음을 강조하고 사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하였다. 榮祿은 선전포고 이후의 上諭를 준수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의 서신을 이들에게 보냄으로써 양자의 유착은 현실화되었다.

庚子事變이 발발하면서 端王 일파의 보수세력은 일단 청정부 내에서 세력을 장악하였지만, 전세가 불리해지면서 약화되기 시작하였다. 우선 전쟁을 결정한 西太后가 동요를 보였고 漢人督撫層은 宣戰의 上諭를 무시하고 열강과 상호불가침협정인 東南互保를 체결하기에 이르렀다. 이런 상황 하에서 청정부의 일관된 정책이 나올리 없었다. 開戰 이후 전혀 성격이 다른 上諭가 계속 반포된 것은 의화단을 이용하여 전쟁을 계속할 것을 주장한 端王 일파와 의화단을 진압하고 열강과 和議할 것을 생각하는 西太后의 입장이 서로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열강이 天津을 점령하고 곧이어 北京을 압박하는 위기 상황이 도래하자 西太后는 이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공식적으로 열강에게 和議를 요청하였다. 端王 일파는 열세를 회복하기 위해 許景澄 등 5大臣을 살해하고 무고한 良民을 白蓮教徒라고 칭하여 북경 시가에서 처형하는 등 극단적 방법을 쓰기도 했지만 대세를 돌이킬 수는 없었다. 결국 이들은 의화단세력을 이용하여 열강과 전쟁을 감행함으로써 청정부 내에서 세력을 장악하려 했으나, 열강과의 전쟁에서 청정부가 완패함에

따라 의화단세력과 마찬가지로의 운명을 견게 되었다. 청정부가 의화단세력과 연합하여 제국주의 열강과 전쟁을 하게 된 것은 바로 이들의 정치적 동향과 밀접한 연관이 있었던 것이다.